

이기웅의 영혼도서관



인간주의(人間主義) 깃발을 올리자

작년 이맘때 나는 독일 바이에른 지방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뉘른베르크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1945년 국제군사재판(國際軍事裁判)이 열렸던 곳. 나는 방황하듯 이 도시의 곳곳을 헤매었다. 독일의 가을 새벽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도처에서 만나는 가슴은 웅만했다. 한반도의 분단현실과 깊은 관계의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격했던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나치의 전쟁범죄를 역사 앞에서 단죄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며 무엇보다도 냉철한 이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진지한 속의 끝에 뉘른베르크 제원칙(諸原則)을 수립하고, 이를 국제연합총회에 의해 확인하는 폐기를 이끌어낸다.

이 역사적 전범재판은 인류에게 커다란 교훈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간주의(人間主義)의 깃발로서 역사 앞에 지금까지 나부끼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2차대전을 거치면서 나치라고 하는, 끔찍한 폭력과 야만을 청산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냉엄한 '원칙과 이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분단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큰 배움이 아닐 수 없었다. 뉘른베르크의 유무형의 유산들은 그 자체로서 거대한 인류 문화유산이 되고 있다.

범계르만 운동의 본거지이기도 했던 뉘른

베르크는 이 운동이 나치즘으로 왜곡 발전하면서 전범자(戰犯者)의 본거지를 이루었다. 학살 만행에 이르게 되는 역사의 현장임을 감안할 때, 이 도시의 도서관과 박물관은 차치하고, 산재한 많은 건축물들은 2차대전 이후의 근대화과정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슈페어의 나치 전당대회 사열 무대장과 건축가 루트비히와 프란츠 루프의 오만 명 수용의 대 의사당은 로마 콜로세움을 흉내 내어 설계해 결국 미안상으로 남아 있는데, 승전 연합군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남겨졌다. 그 구조물의 일부에 독일 제삼제국의 잘못된 역사를 비판 반성하고 불행했던 역사의 기억을 재현한 도큐멘테이션 센터를 건축적 패러디의 방식을 빌어 세워 놓고 있는데, 놀라운 유산으로서 재현해 놓는 지혜를 바라보면서, 경북공 경내에 있다가 헐려진 조선총독부 건물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잘못된 역사의 유물을 부정의 방식이 아닌 긍정의 방식으로 패러디해 낸 오스트리아 건축가 귄터 도메니히의 솜씨가 부럽고 또 놀랍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속으로 돌아온 나는 조용한 호텔방에서 숙제처럼 읽어 놓았던 유홍준이 지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곱 번째 책의 서평을 쓰기 위해 노트북을 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이곳의 문화유산과 우리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글을 쓰고 싶었다.

몇 년 전인가,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로 많이 알려진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와 오찬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다. 그는 당시에 격심했던 동종전의 현장을 중계하듯 보도하는 CNN 뉴스를 보면서 몽블랑 만년필로 원고지에다 로마시대의 이야기를 손으로 쓴다고 말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상력 훈련임을 이 직업 문필가의 말솜에서 크게 감명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2008년 2월 10일, 한 부랑인의 방화로 승례문(崇禮門)은 온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불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런 일이 있던 지 다섯 해 만인 올해에 많은 국가 예산과 온 국민의 정성 속에서 복원공사를 끝내고, 불난 일이 마치 전화위복인 양 당당하게 우리 앞에 다시 모셔진 국보일호를 칭송하면서 축하행사를 벌였다. 바로 몇 개월 전의 일이었다. 복원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다섯 해 동안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문화재를 가장 아끼고 갈무리 잘하는 문화재 일류국민이 된 듯, 온갖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복원 승례문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다시금 우리 앞에 추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의 일류 전문가들이 총동원된 이 복원사업이 아예 수포로 돌아간 듯싶

다. 우리 문화재의 현실은 뜻있는 이들에 의해 그동안 끊임없이 위기가 경고되 왔다. 문화재를 다루거나 현장을 지키는 거의 대부분의 조건들이 승례문 사태를 예고하는 현정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문화재들이 이미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기록문화재는 삼거래에 맡겨져 방치돼 있거나, 최근에 완간을 본 '우현 고유선전집(又玄 高裕嬾全集)'처럼 사립 출판사가 심혈을 기울여 정리하지 않았다면 문화재로서 영영히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서평을 쓰면서, 그 답사기에 앞서 1982년 한창기 님에 의해 뿌리깊은 나무에서 간행된 열 권짜리 '한국의 발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문화에 대해 폭넓은 시야와 유존의 방식을 제시했고 이를 실천했던 한창기! 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는 그 책머리에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의 편찬한 외로운 선구자 고산자(古山子) 님께 바친다는 헌사(獻辭)가 있어 매우 뜻깊게 하고 있다.

고산자나 한창기처럼 인간주의의 깃발을 드는 국민이 많지 않은 한 우리 문화재의 현실은 밝을 수가 없다. <열화당 대표>

기고

광주은행 지역 환원을 위한 체크포인트



강 기 정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

광주은행 매각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항도은행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최종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6개 후보에 지역상공회의소와 광주은행 우리사주 노조가 포함되긴 했지만, 두 곳 모두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디메트로 삼고 있는 12월 말일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주은행 인수의 밀그림이 명확하지 않아 사·도민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은행이 지역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 1998년과 1999년, 4만5000여명의 지역민이 광주은행 증자에 참여해서 4379억원의 피해를 입었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다. 이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에도 광주은행은 지역중소기업 대출 비중과 역대 자금유입 규모, 사회공헌활동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여타의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거둬왔으며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 왔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대응은 경남에 비해 몇 걸음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지점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다. 어쩌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일은 적법한 인수구조를 마련하는 문제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상공인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수구조는 PEF(사모펀드)를 구성해 참여하는 방법뿐이다. 이 경우 펀드 운영자인 GP와 개별 투자자인 LP(유한책임사원)를 모집해야 하는데, 경남이 이미 예비입찰대상자 신청 전부터 GP를 선정하고 연기금 등의 투자유치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비해 우리 상공인연합은 최근에야 PEF 인수 방식으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도 GP 선정을 못 하고 있다. 조바심이 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은 상공인연합이 과연 광주은행을

인수하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진다.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돼서도 안 될 일이지만, 혹시라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조가 아닌 여타 인수주체와의 합종연횡을 시도한다면 항도은행을 만들겠다는 당초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구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투자수익극대화라는 사모펀드의 본질적 특성상 경영 불안의 가능성과 중국적으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점, 자칫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민은 계속된다.

두 번째는 상공인연합과 우리사주의 상호협력기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상공인연합을 이끌고 있는 광주상공회의소와 우리사주 형태의 노조가 각각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돼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경남이 처음부터 지역 경제계와 노조, 지자체, 정치권 등 여러 주체들이 하나로 뭉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치 역할을 나눠가며 체계적으로 대응해 온 것에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두 주체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권과 지자체에 상호 협조할 일을 제안하고 주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관철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선정기준을 여전히 '최고가입률'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법에서는 ▲빠른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극대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광주은행이 지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인수자의 지역기여도와 같은 정성적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이런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매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세금면제가 필요하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대규모 감세불가의 주장과 충돌할 수 있다.

광주은행의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다. 외부적으로는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은행장 취임과 노조위원장 선거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광주은행을 지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를 작금의 시기에 인수주체로 나선 상공회의소와 노조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맞대고 지혜를 모아 앞에 놓여있는 난관들을 돌파해 가야 할 때다.

종교칼럼

김치, 어울림의 맛



방 길 틈 원불교 나주교당 교무

김장철이다.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분주하다. 김치가 있어야 겨울이 풍성해진다. 그만큼 우리에게 김치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김치는 침채(沈菜)로 담가 저런 채소이다. 고구려 벽화에서도 땅에 묻어 놓은 항아리 김치가 보일 만큼 김치는 우리의 오래된 전통이다.

이처럼 교수는 김치철학을 우리 문화에 접목해서 설명하고 있다. 김치가 맛의 교향곡이라는 것이다. 음양오행의 철학이 김치에 담겨있다고 한다. 오행의 표현인 오색과 오미(五味)가 김치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배추와 무의 흰색과 배추 잎과 파의 푸른색 그리고 생강 마늘 등 부산물의 누런빛, 고춧가루의 붉은색 절갈류의 검은색 등 오색이 어우러져 김치가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김치는 처음에는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맵

고 짜지만 익어가면서 시원하면서 은은한 저음의 단맛을 내고, 나중에는 신맛을 낸다. 오미가 어우러지면서 각각의 시기에 따라 맛의 중심이 이동한다. 이처럼 우리의 김치에는 오행철학이 깃들어 있다. 들과 산, 바다의 산물들의 향연인 셈이다.

김치는 양념이 들어간다. 짠 양념을 다해 버무린다. 이 양념은 악념(藥念)이 변한 것이다. 악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속을 넣기 때문이다. 음식이 약이다. 김치는 제3의 발효음식이다. 인류는 음식을 불에 익히거나 날것으로 먹었다. 셀러드는 자연 그대로 날것으로 먹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프는 불에 익혀 먹는 문명이다. 그런데 김치는 날것도 아니고 익혀 먹는 것도 아닌 자연에 시간을 더한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음식이다. 그래서 김치는 새로운 문명이다.

서양에서는 하나의 음식 자체가 독립적 실체다. 그러나 김치는 김치 자체로 독립된 음식이 아니라 밥과 관계된 음식이다. 김치는 흠로 있는 음식이 아니고, 독자적인 맛을 지닌 음식도 아니다. 관계 속의 음식이다. 김치는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다. 각자가 요리의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음식의 기본 베이스는 짜져 있으나 최종 맛은 먹는 사람이 그때그때 직접 만들어 먹는다. 본인의 성향

에 따라 밥과 반찬을 조화시켜 맛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반찬은 바로 김치다.

서양의 요리가 시간에 따라 먹는 것이라면, 우리의 음식은 한 자리에 놓고 조화시키는 맛의 예술이다. 여기서 밥과 반찬의 역할이 있다. 반찬은 밥과 어울릴 때 드러난다. 반찬만 먹을 수는 없다. 밥 없이 김치만 먹으면 입이 맵고 얼얼해진다. 또 밥은 지우개가 같다. 흰 밥을 먹으면 앞의 맛을 개운하게 지워준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맛의 조화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고기를 먹을 때는 김치가 지우개가 된다. 김치를 먹으면 개운한 맛이 고기의 맛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원불교의 교조인신 소태산 박종빈은 우리에게 네 가지 은혜를 천명해 주셨다.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 즉 사은(四恩)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 김치는 바로 이런 사은의 산물이다. 농부들의 노고와 천지자연의 조화 그리고 부모와 이웃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공공의 산물이다. 이런 천지 만물의 은혜가 김치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김치는 절여서 버무리고 담가 익히는 것이다. 천지의 힘과 효도의 도움, 땅의 지력과 하늘의 기우 그리고 독(김치냉장고)의 숙성이라는 타력을 힘입고 있다.

우리고 김치 한 입을 먹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하겠다. 천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동포의 수고로움과 공급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김치를 한 입 먹으면서 김치의 진리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겠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광주시 亞 예술인촌 조성 갈등 해법 찾아라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반 사업인 '아시아 아트컬처파크'(가칭 아시아 예술인촌) 프로젝트가 잠정 보류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이유인즉 사업부지에 포함된 광주시 동구 운림동 성촌마을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이 토지수용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더욱이 찬·반 주민간에 첨예한 대립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하니 그동안

광주시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 사업은 운림동 성촌마을 일원(1만7920㎡)에 예술인 창작공간, 한옥박물관, 창작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시아 예술인들의 교류·창작 거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306억 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13일 광주시가 마련한 주민설명회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성사업을 찬성·반대하는 성촌마을 주민들이 서로 뽐내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회의 불참에 따짓까지, 도의원 자질 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무관심과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파행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불참 의원들 많아 정족수 간신히 채워 개회하는가 하면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중복 질의는 예사이고, 심지어 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는 의원들도 있었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사업 전반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이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그만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의원들이 보이 행태는 하나같이 수준 이하였다.

13일 안전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 환경위원회 사무감사에서 9명의 의원 중 3분의 1인 3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나 참석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개회를 하지 못하다 지각한 의원 1명이 겨우 입실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12일 열린 경제관광공

화위원회 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참석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3일 내내 참석률은 극히 저조했다.

행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행정감사 본연의 모습은 뒷전이었다. 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도 비밀비재했으며, 질의 내용에 사전 준비 없이 재탕, 삼탕 수준에 그쳤다.

의원들의 그릇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자질을 의심할 감사라는 점에서 그만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의원들이 보이 행태는 하나같이 수준 이하였다.

더 이상 지방의회가 이런 몰골로 방치돼선 안 된다. 이제 지방의회의 일탈을 바로잡는 데 주민이 나서야 수밖에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추려내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010년 11월 15일 거란의 성종이 이끄는 40만 대군이 고려 침략을 위해 압록강 앞에 진을 쳤다. 그 시각, 개경에서는 팔관회가 한창이었다. 3경, 동·서·병마사, 4도호부 8목의 수령들이 고려 8대 왕 현종에게 표문(제후가 천자에게 올리는 문서)을 올리고, 대소 관료와 왕족들이 헌수(장수를 비는 뜻에서 올리는 술잔)를 바쳤다.

이 날의 팔관회는 30년만에 부활한 것으로, 현종이 40만 대군을 지적에 두고 태연하게 팔관회를 연것은 민심을 결집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려 했기 때문이다. 현종은 993년 거란의 1차 침략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팔관회가 폐지된지 10여년이 지난 당시, 조정에선 '거란에 땅을 빼어주고 항복하자'는 '할지론(割地論)'이 대세를 이뤘지만 일부 대신들이 팔관회 부활로 민심을 결집해야 한다고 버티 자진항복은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성종의 바램과는 달리 1010년 거란군의 2차 원정대는 11월 16일 압록강을 넘어 12월에는 개경을 압박했다. 개

경 함락직전인 12월 28일 현종은 피난을 떠나 나주로 몽진을 온다. 현종은 10여일 나주에 머무는 동안 지금의 심함사(금성산 기슭)에서 팔관회를 개최했다.

고려 왕실은 팔관회를 매년 10월 15일 왕 현종에게 표문(제후가 천자에게 올리는 문서)을 올리고, 대소 관료와 왕족들이 헌수(장수를 비는 뜻에서 올리는 술잔)를 바쳤다.

팔관회를 계기로 현종은 나주에 대해 개경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12목에서 8목으로 행정구역을 줄일때도 나주는 그대로 뒤 전남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나주시가 팔관회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에 나섰다. 2년전에는 재현행사를 처음으로 한데 이어 며

칠 전에는 심포지엄을 갖고 축제로 승화시키기로 했다.

나주로선 고려시대의 훌륭한 자산을 하나 더 갖게 됐다. 이 참에 민심과 사회 통합이라는 팔관회의 정신이 파벌과 반목으로 얼룩진 나주에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필수 사회팀장 bungy@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洛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